

#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Credit Card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Household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任 貞 彬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Jeong Bin Im*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李 映 浩

*Dept. of Home Management*

*Sugnkyum Kwan University*

*Lecturer : Young Ho Lee*

### 목 차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의의
2. 연구의방법 및 범위

#### II. 신용카드와 거래에 관한 고찰

1. 신용카드의 기원 및 정의
2.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원리

#### III. 신용카드와 가정경제

1.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 2.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을 중심으로 —

- 1) 사용, 관리측면에서의 문제
- 2) 거래시점에서의 문제
- 3) 신용측면에서의 문제
- 4) 보증인측면에서의 문제

####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use of credit cards has been increasing from last decade, although there are many kinds of difficulties for using credit cards.

The aims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problems of arising from the use of the credit card.

Four types of the problem are proposed ;

1) The problem of managing the credit card, 2) The problem of the time of using credit card, 3) The problem of "credit" between issuer and user of credit card, 4) the problem of cosigner.

The cases which concerned with each types of problem are discussed.

Guidelines of using credit card are proposed that can be useful for consumer education and helpful for users and dealers of credit card.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신용카드는 1969년도에 신세계 백화점이 임직원에게 발급한 신세계카드로서, 당시의 카드보급 및 사용정도는 미진한 상태였으나, 1980년대에 은행 신용카드(Bank Credit Card)가 생기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에 치러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대기업들이 소규모의 신용카드회사를 인수하여 대규모화를 시도 하면서<sup>1)</sup>, 1984년도말에 132만명이었던 신용카드 회원이 1990년 5월 현재 730만명에 달했고, 발급매수도 800만매를 넘어섰다. 또한, 1989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을 보면 9조 9천 1백억원을 기록(매일경제신문, 1990년 5월 1일 13면)하는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양적 증대의 이면에는 신용카드가 대금 결제의 기능이나 외상 구매의 기능외에도 대출기능, 할부기능, 여행서비스기능 등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제공해주는 기능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면, 신용카드의 사용은 이용자(개별소비자 또는 가계)로 하여금 효용을 앞당겨서 누릴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경제적 곤란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여 준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인접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과 은행

에게도 편익을 제공해 준다. 즉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판매대상(target market)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외상 거래시보다 자금회전이 빠르므로 규모의 경제로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가계의 소비자금과 여유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옴에 따라 예금의 입출금이 집중화되며 소비자 금융과 관련한 이자수입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광역환경이라 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민간저축의 증대효과를 가져와 투자를 촉진시키게 되고, 소비자금융으로 인해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주체들 간의 효익(benefit)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신용카드 산업의 확산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여러가지 면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최근 신용카드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신용카드 범죄가 신종범죄의 하나로 취급(중앙일보, 1990년 1월 19일자 4면)될 정도로 신용카드 거래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신용카드사고가 1989년 한 해동안 6,576건이 발생(동아일보, 1990년 3월 29일자 6면)하였고, 1990년에는 신용카드 피해로 인한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총 민원접수 현황이 50만건이나 되며, 이에 따른 보험금지급액도 40억원에 달한다(이성규, 1990). 또한 1990년 9월 현재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은 2천5백억원이 넘는 실정이다(박의준, 1990).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가 각 경제주체들에게, 특히 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문제에 대비하고 문제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연구들(심영, 1982; 이말영, 1984; 이미숙, 1985; 최동숙, 1985; 허정희, 1985; 이영호, 1986; 남정숙, 1988; 남전희, 1989; 김정훈, 1989; 박근주, 1990; 여정성, 1990)은 대체로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 사용행동 및 관리

<sup>1)</sup> 1987년 10월 15일, 국민카드를 취급하고 있던 국민은행에서 수권자본금 8백억원으로 국민신용카드(주)를 창립하였으며, 1988년 3월에는 단일카드사로서 최초로 회원을 확보하여 일본 신판과 업무체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장기 신용은행에서도 1988년 4월에 장은신용카드(주)를 창립하였고 1988년 3월 T & E(Travel & Entertainment)카드였던 Korean Express카드의 신용카드(주)는 재벌회사인 럭키금성그룹에 인수되어 명칭도 L.G.신용카드(주)로 변경되었다. 7월에는 한국외환은행의 출자사인 환은신용카드(주)가 VISA 카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1988년 5월에 주식회사 KOCA 신용카드가 삼성그룹에 인수되어 삼성신용카드(주)로 변경되면서 위너스 카드를 만들었다.

행동, 또는 신용카드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에 관련이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신용카드와 거래에 관해 고찰한 후, 신용카드와 가정경제와의 관계에서 신용카드의 기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역기능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거래에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상에서의 역기능을 축소하고 순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정의 재정관리를 규모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 하며, 나아가 소비자보호적 차원에서의 지침을 얻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정학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가 채택해 온 질문지를 사용하는 조사 연구방법보다는 한국적인 특성이나 상황을 토대로 한 사례연구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사례집」과 「판례월보」등 문헌을 통해 소개된 판례와 피해구제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의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사례연구에 대신하고자 한다.

판례 및 피해구제사례를 연구의 분석내용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나 특수 기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문제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통해 그보다 더 큰 문제나 더 작은 문제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관련한 판례는 판례월보를 통하여 보았을 때, 카드도난사건과 관련한 것이 10건, 카드의 보증과 관련한 것이 21건, 제3자의 카드사용 묵인과 관련한 것이 1건, 카드회원의 연체와 관련한 것이 2건, 카드의 이자율과 관련한 것이 1건, 외환 문제를 다룬 것이 1건, 카드절취 사건이 3건으로 분류되어 총 39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1990년 한해동안 신용카드 피해로 인해 접수한 총 민원접수 현황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들의 내용을 가정의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를 사용 관리측면에서의 문제, 거래시점에서의 문제, 신용측면에서의 문제, 그리고 보증인 측면에서의 문제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論하고자 한다.

## II. 신용카드와 거래에 관한 고찰

### 1. 신용카드의 기원 및 정의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재화와 용역을 外上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백화점이 매상고를 높이기 위해 고안한 것이 최초이다. 즉,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 외상구매가 가능하도록 만든 신용 주화(credit coin)에서 비롯되었다. 신용 주화에는 판매자, 즉 백화점의 명칭과 소유자인 고객의 번호만이 기재된 단순한 금속원반(metal disk)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원반의 형태가 카드의 형태로 바뀌었고, 이것이 오늘날 신용카드의 원조가 된다. 카드의 형태로 최초의 것은 1914년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주유소에서 가솔린이나 오일, 기타 부속물을 구입할 수 있게 발행한 것이다(Davenport, 1967).

우리나라에서는 1969年度에 발행된 신세계 백화점카드가 효시이며(김운환, 1981),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민은행의 국민카드와 서울신탁은행등 시중은행이 연합하여 만든 은행신용카드, 한국 외환은행의 VISA카드등 은행계신용카드의 보급으로 신용카드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향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란 이를 相換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통해서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함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금과 다른점도 찾을 수 있다. 첫째, 현금은 물품이나 용역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금가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과의 동시교환이 이루어지나, 신용카드는 제시만 하고 도로 소지하므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다(반복성). 둘째, 현금은 그것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사용자가 정해져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배타성).

결국 신용카드는 그것을 소지한 사람이 적정한 신용을 갖추었다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물품이나 용역, 시설이용등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 2.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원리

신용카드의 종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대별될 수 있다. 이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제한목적카드(limited purpose card)와 다목적카드(all purpose card)로 나눌 수 있는데, 물품의 구입에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는 카드를 제한목적카드 또는 단일목적카드라 하고,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 소비자금융, 할부구입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목적 또는 범용(汎用)카드라 한다.

백화점, 호텔, 유통업계의 카드가 제한목적카드에 속하고 전문회사카드와 국내외 은행계카드가 다목적 카드에 속한다.

발행회사에 따른 분류로서는 백화점이 발행한 카드를 백화점 카드, 백화점등 여러 가맹점을 두어 신용카드업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전문회사가 발행한 전문회사카드, 각 은행에서 附帶業務로 신용카드업무를 제휴하여 발행되는 은행신용카드로도 분류된다.

또한 사용가능한 지역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를 국내카드라하고, 국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국제카드라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거래 당사자의 수에 따른 것이다. 즉, 거래 당사자의 수에 따라 兩當事者카드, 三當事者카드, 多當事者카드로 나뉘는데 이들의 거래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兩當事者카드(dual party card)는 카드발행인(card issuer=seller)과 카드회원(card holder = buyer)의 두당사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로 구성된 것이다. 백화점이나 호텔, 특수품 판매점, 유통업계에서 그들의 점포에서만 사용하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여기서의 거래원리는 가맹점이 따로 없이<sup>2)</sup> 카드발행인이 곧 가맹점이 되며, 회원이 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도 직접 지급하는 단순한 것으로, 예전의 얼굴보고 외상주던 방식대신 신용카드를 보고 외상을 주는 것이다.

둘째, 三當事者카드(three party card)는 발행인과 카드 회원, 그리고 가맹점의 3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양당사자카드에서는 카드발행인이 곧 판매자인 동시에 가맹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분화하여 카드발행인과 판매자로 나뉘고, 카드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제공받은 상품의 대금은 일정기일후 가맹점이 아닌 카드발행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또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 기일까지 가맹점에게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원리를 갖는다.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위너스카드, LG카드, Diners카드, American Express카드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多當事者카드(multy-party card)는 四當事者 카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三當事者카드의 원리에서 카드발행인의 역할을 은행과 분담하는 형태이다. 즉, 카드발행인은 카드발행만 하고 회원에 대한 청구서 발송과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은 은행이 대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발행한 B.C.카드, 한국의 환은행이 발행한 VISA카드가 이에 속한다.

결국, 多當事者카드는 三當事者카드에서 카드발행인이 하던 업무를 은행이 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유통이 카드 발행인보

<sup>2)</sup> 롯데백화점카드와 신세계백화점카드에는 가맹점이 가입되어 三當事者카드화 되고 있다.

나는 은행이 더 용이하며 안전하므로 대금지급불능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 셈이 된다.

또한 三當事者카드는 兩當事者카드에서의 카드발행인이 회원관리와 판매를 담당하던 것을 가맹점을 두어 분담한 것이므로, 결국 多當事者카드는 三當事者카드에 귀착되고 三當事者카드는 兩當事者카드의 거래원리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三당사자카드가 多당사자카드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는 발행사별로 50개종이 있으며, 가맹점 수도 총 50만개소에 이르고 있다(이성규, 1990).

### III. 신용카드와 가정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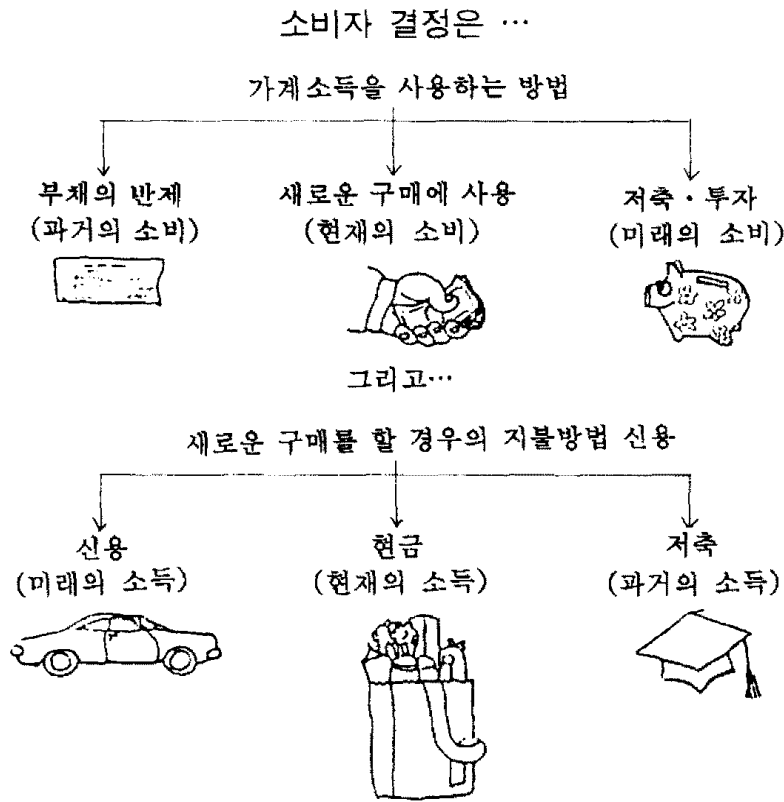
#### 1.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가정경제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가

속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주요 자원인 소득을 사용하는 용도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소비의 결과인 負債를 갚는 것과, 현재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사용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현재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소득원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소득인 저축을 인출할 수도 있고, 현재의 소득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미래의 소득인 소비자 신용으로도 가능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Ando, Modigliani, Brumberg 등의 일생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소비를 위해 소비자신용의 사용을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



자료원 : Corrigan, E.G. 『YOUR CREDIT RIGHT』,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7

그림 1.

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의 기능을 가정경제의 목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소비자 신용은 동일한 가격으로 즉, 일정기간까지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원의 사용시기를 바꾸어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의 사용은 이용가능한 총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금전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한다(Deacon & Firebaugh, 1988). 그러므로 신용카드의 사용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히 충족시켜주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정경제의 목표를 도와주는 신용카드의 順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현금대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거래시 거스름돈을 받거나 돈을 셀 필요가 없으므로, 번거로움이 적고 시간이 절약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의 거래원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금거래보다 복잡하다.

<sup>3)</sup>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카드에 의한 상품구입자의 현금구매자간의 형평문제가 1970년대 중반 美議會에서 대두되었다. 즉, 카드에 의한 판매는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현금판매에 비해 많은 판매비용을 들게 하기 때문에(聯準調查報告書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수표나 현금거래에 비해 2~3%의 비용이 더 들며, 물가에는 1%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상은 이를 상품가격에 반영시키게 되며, 따라서 동일상품을 현금구매자와 카드구매자가 같은 가격으로 사게 될 경우, 현금구매자는 카드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

<sup>4)</sup> Stampfle은 미래사회의 소비자가 현재와 어떻게 다르게 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를 시대별로 192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성년이 된 소비자를 산업기소비자,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성년이 된 소비자로 산업기소비자인 부모나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세대를 과도기소비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성년기에 도달하는 소비자를 후기산업기소비자로 나누고, 후기산업기소비자의 특징을 소비재의 소유보다는 사용 자체에 관심을 두어서 임대나 공동소유가 점차로 일반화되며, 쓰고 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과거의 사용방식에서 재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인력 및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은영, 1984) 결국, 그러한 부담은 소비자인 각 가정에 전가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sup>3)</sup>.

신용카드의 주기능은 경제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Hirschman, E.C., 1988), 활성화의 근거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내구재나 가격상승이 현저한 상품의 구입에 신용카드가 사용될 경우, 효용을 앞당겨서 누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익한 사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재를 비롯한 不要不急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편리하다는 특성으로 쉽게 사용된다면 가계의 소비성향은 높아질 것이며, 미래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젊은 층에서는 신용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재산이나 권리로 받아들이며 (국민은행, 1979), 소유가치보다 사용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Stampfle(1978)<sup>4)</sup>이 예견한 후기산업기 소비자의 특징과도 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가치의식구조가 다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하며(고광철, 1990; 월간신용카드정보, 1990), 이는 곧 구매를 자극하므로 구매하는 항목의 양이 많아져 신용카드에 의한 구매가 현금구매를 초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결국, 비계획적인 소비생활에 젖어 수입과 상응하지 않는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잉구매와 충동구매가 가계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여 가정경제의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신용카드가 갖는 가정경제에 대한 逆機能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신용카드와 가정경제와의 관계를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대해 기능하는 바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신용카드는 그것이 현명하게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가치있는 수단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 관리에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Dunsing et al, 1973)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경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현명한 사용과 성실한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일반 이용자 가정에서 비교적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신용카드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 관리 측면, 거래시점, 신용측면, 보증인측면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소한 부주의에 대한 커다란 피해나 손해가 따를 수 있는 경우들을 최근에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시에 있었던 實例를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루어질 문제들은 「판례월보」에 소개된 판례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피해구제사례집」에서 선별하였다.

1) 사용·관리측면에서의 문제

신용카드 문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권한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도난이나 분실은 사용자인 소비자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비롯되며, 타인이 권한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맹점이 서명을 확실하게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문제를 사용 관리측면에서의 문제라 칭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실제로 85다카1490판례(판례월보, 188호)의 사건내용을 보면;

「崔氏는 1983년 9월 30일, 야간에 시내버스 안에서 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여, 1983년 10월 4일, K은행 관악지점에 도난사실을 신고(도난당하던 9월 30일은 야간이었고,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0월 2일은 일요일, 10월 3일은 開天節로 모두

휴일인 관계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하였는데, 10월 1일 부터 10월 4일까지의 사이에 崔氏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였다. 이에 崔氏는 1983년 10월 21일에 崔氏자신의 서명과 부정사용된 매출표상의 서명이 서로 다른 점을 이유로 K은행으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은행은 1983년 10월 30일에 각 가맹점에 5,881,26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연체료등이 첨가된 지급통지를 崔氏에게 보내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에 崔氏입장에서는 지갑을 도난당함으로써 지갑속의 현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崔氏는 카드의 도난사실을 최단시간내에 K은행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서로 상이함을 들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사후의 관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서명이 판이하게 달랐음(최규형을 최형규라고 서명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sup>6)</sup> 이 경우에서의 책임은 가맹점이 저야 마땅하다고 판결이 났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사례중에는;

「소비자인 유氏가 VISA카드를 가족회원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1988년 6월 7일에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분실 신고를 하였으나 카드회사로부터 1988년 4월 25일에서 4월 29일사이에 발생한 부정사용액 4,700,000원 및 6월 7일에 사용한 26만원이 합해진 4,960,000원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위의 사실에서 유氏는 崔氏와 비교할 때, 본인이 카드를 분실한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액의 발생시점이 4월말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분실후 한달간을 모르고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sup>5)</sup> 현재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접수를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전화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VISA카드의 회원규약에 따르면 분실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최고 2만원까지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씨는 분실신고를 한 6월 7일의 부정 사용액 260,000원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인 4,700,000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표 1 참조).

결국 유씨는 신용카드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약 유씨가 분실사실을 일찍 알아서 곧 신고를 했더라면 손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씨의 사례는 소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즉 유씨의 사례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상없이 소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崔씨의 사례를 통해서 사후 신속히 도난 및 분실 신고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번호와 카드 발행사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어야 하며 각 카드회사의 분실시 보상범위가 다르므로 알아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표 1 참조).

또한 신용카드는 정해진 액수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몇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액수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단순한 플라스틱 머니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내에서는 백지수표에 버금가는(김문환, 1989) 것이므로 현금 이상의 주의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 2) 거래시점에서의 문제

거래시점이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상품을 인도받는 시점을 말하는데, 거래의 당사자 즉, 판매자인 가맹점과 구매자인 카드회원이 상호간에 얼마나 성실한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거래시점에서의 문제는 가맹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컨대 가맹점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을 받을 때 백지전표를 밑에 끼워서 서명을 복사해 두었다가, 후에 금액을 기재하여 부당하게 카드회원인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매출전표상의 금액을 변조하여 청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사례 중에는 :

「소비자인 장씨가 1988년 11월에 회사를 방문한 외판사원으로부터 카메라를 120,000원에 12회 할부로 구입하고 대금은 B.C.카드로 결제하였다. 다음 달에 B.C.카드(주)로부터 카메라대금이 청구되었는데 매출전표상의 금액이 720,0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장씨는 카메라 판매회사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담당외판원이 퇴직하였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리결과는 장씨가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와 판매자가 은행에 대금청구한 매출전표를 대조 확인한 결과, 판매원이 대금을 변조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sup>7)</sup>을 들어 카메라 판매회사에서 차액인 600,000원을 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만약 장씨가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외판원의 부정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출전표

<sup>6)</sup> 가맹점규약 제 4조의 1항, 2항에 가맹점의 의무로 서명확인 규정이 있다.

「제 4 조(신용판매방법)」

1 가맹점은 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동 카드의 진위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정지 일람표와 대조하여 동 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이하 '이-지 체크'라 함)설치 가맹점은 동 이-지 체크에 의하여 유효카드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지 체크를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거리정지 번호 일람표와 대조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하는 매출전표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입한 후(카드번호, 회원의 성명, 카드유효기간, 신용판매일자등은 반드시 임프린터를 사용 기입하여야 함) 회원으로 하여금 서명하여 동서명이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명대신 기입채명이 기재된 카드(기업공용카드)는 사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4.5.6.7.8 생략.

(1991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신용카드(주)의 가맹점 규약임을 밝힘)



표 1. 신용카드 거래조건표

종 류	은 행 계 카 드			전 문 계 카 드			외 국 계 카 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환은카드 (VISA)	상은카드	위너스카드	엘지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카드
회 비 정 수	입 회 비	3,000원 (비자, 우대)		5,000원 (일반)	5,000원 (일반)	5,000원 (일반)	45,000원 (그린)	면 제
	업 회 비	5,000원 (비자특별)		20,000원 (특별)	10,000원 (특별)	10,000원 (특별)	80,000원 (골드)	45,000원
	발급수수료	2,000원 (단 마스타는 5,000원)	일반 2,000원 우량 5,000원 골드 10,000원					
카드론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500만원	카드이용 실적 이 있는 사람 으로 최고 500만원		이용실적에 따라 일반 1,000만원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 300만원. 특별 1,000만원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 500만원. 특별 1,000만원	골드카드 회원 만 200만원	
여 보 행 자 협	항공권 구입시 본인 1억원, 가족 6,600만원 까지 자동가입	항공권 구입시 5천만원~1억원까지 보상	항공권 구입시 본인 1억원, 가족 6,600만원 자동가입		항공권 구입시 최고 2억원까지 자동가입	항공권 구입시 일반 1억원, 특별 1억5천만원 까지 자동가입	항공교통편(기차, 선박, 자동차, 항공기), 티켓 구입시, 그린은 1억원, 골드는 2억원까지 자동가입	항공권 구입시 회원 1억2천만원, 가족 1억원 까지 자동가입
사용대금 결제시기	5, 12, 20, 27 (일)	27일	7, 12, 17, 22, 27(일)	26일	11일, 26일	12일, 27일		5일
수 수 료 율	현금서비스	1회 2.5%	左 同	左 同	左 同	1회 2.9%	1회 2.95%	1회 3%
	할 부	연 15%	左 同	左 同	左 同	연 17%		연 16.5%
	카드론	연 11.5%	연 11.5~12(%)		연 16~17(%)	연 19%	연 19%	
연 체	연 19%	연 19%	연 19.5%	연 19%	연 24%	연 24%	월 3%	월 3%

카드분실시 보 상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신고전 15일 이내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1회 이용 한도(만)*	30	50	30	50	30	50	30	50	30	50	30	50	30	50	30	50
월간 이용 한도(만)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할부구매이용 한도(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현금서비스이용한도 (만)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1회 이용한도는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으며, 카드사용시 이지-체크를 통해 승인번호를 받은 회원이며 이용한도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번호가 나타나지 않은 회원은 카드발행사의 승인을 얻으면 사용이 가능함.

\*\*장은카드의 할부구매한도는 잔액기준임

즉 할부구매이용한도가 50만원인 회원이 상품을 3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그것을 완불하기 전이라도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새로운 할부구매가 가능하다.

\*\*\*〈표 1〉의 내용은 연구자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직접 전화조사한 것임(1991. 10. 2)

발 영수증 보관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 그 중요성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전표의 금액변조외에도 매출전표를 여러장 포개어 서명이 복사되도록 한 후 금액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 과정을 소비자가 지켜보아야<sup>8)</sup> 할 것이다.

### 3) 신용측면에서의 문제

신용카드라는 명칭은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신용측면에서의 문제는 카드회사측의 신용문제와 사용자인 소비자측의 신용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카드회사에서는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의 신원과 신용을 충분히 조사한 연후에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각 카드회사의 회원모집경쟁이 심화되어 신용조사없이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를 발행하여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sup>9)</sup>. 이러한 것이 카드회사가 안고 있는 신용측면의 문제이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회원규약(서면)을 받게 되는데 이는 회원규약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규약에 정해져 있는 월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든지, 거래중지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없이 신용카드를 통해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등이 소비자가 안고 있는 신용측면의 문제이다.

실제로 82고단 4357판례의 사건내용을 보면 ;

「양씨는 L백화점으로부터 1980년 11월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1981년 2월 6일부터 7회에 걸쳐 환전이 쉬운 카메라, 라이터등 고가품을 구입하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단지 현금으로 바꿀 목적으로 무려 1,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연체가 되어 거래중지를 당하자, 1982년 4월에 신청인 및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다른 명의의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또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동일 수법으로 L백화점 에서 T.V등 고가품을 구입하는 등 3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카드회사측의 신용문제와 소비자측의 신용문제가 함께 들어 있음이 나타난다. 이 사건에서 판결은 소비자인 양氏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거래가 중지되기전과 그 후로 나누어 각각 형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카드회사측의 문제도 있다. 즉, 양氏가 허위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신용조사를 충분히 하였다면 거래중지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0년 9월 현재, 6개월 이상의 연체자는 23만명에 달하는데(박의준, 1991) 원인은 카드회사들이 회원 확보에만 치중하여 무보증으로 신용조사없이 카드를 발급하는데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신용측면에서의 문제는 카

<sup>7)</sup> 民法 제 756 조(使用者의 賠償責任)

①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使用者에 같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 前 2項의 경우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sup>8)</sup> 최근 T.V.에도 방영되고 있는 신용카드광고 중에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그가 결제한 후 다시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래시점에서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는 소비자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sup>9)</sup> 1960년대 말, 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비약, 발전하는 과정에서 카드범죄도 격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한 예로 어떤 이가 자기집 개에 직업은 Watching Dog(집 지키는 개)라고 쓰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나 수입도 적지 않은 채로 카드를 신청하였는데 즉각 카드가 발급, 우송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시카고의 어떤 소기업인은 신청도 하지 않은 Continental Illinois 은행 카드를 3일만에 7매나 발급받았다고 한다.(김문환, 1989).

드발행자와 소비자의 신용이 상호관련되어 있으나 카드회사측의 신용조사없이 카드발급을 허용하는 행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반드시 어느 한도까지의 신용조사를 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수의 카드발행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를 우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김영성, 1988).

또한 소비자측면에서도 자신의 신용한도내에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비계획적인 소비생활은 가계적자를 누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부채는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가정을 파괴하고 건실한 정신마저 잃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는 그에 앞서 규약을 읽음으로써 사용한도액을 알아두고, 자신의 가처분소득 중 어느정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되 가처분소득의 2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青木茂, 1970).

#### 4) 보증측면에서의 문제

신용카드의 여러가지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앞의 양氏의 경우도 발급신청서상의 보증인의 인적사항이 허위 기재가 아니었

다면, 그 책임은 보증인에게 돌려졌을 것이다. 이것은 보증인의 책임한계가 규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사자도 모른 채 도장날인만으로 보증인이 되거나, 보증시효가 확실히 없어서 한번 보증을 서면 카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시에도 계속적으로 보증책임이 연장되어 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증측면에서의 문제로 보았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사례 중에는 :

「소비자인 채氏는 1987년 8월에 L백화점의 카드회원인 박氏의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박氏가 1988년 2월 17일에서 3월 17일 사이에 2,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피하였다. 이에 L백화점에서는 채氏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채氏는 이미 박氏가 도피한 사실을 알고 L백화점에 대해 연대보증인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었다. 따라서 채氏의 연대보증인 계약해지 통보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160,000원중 1,940,000원은 채氏의 책임이 되고 통보이후에 사용한 206,000원에 대해서는 L백화점의 책임이 되었다」고 한다.

또 85다카 1626판례(판례월보 200호)의 사건내용을 보면 :

「최氏가 1984년 3월에 국민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의 지급채무를 조氏가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최氏가 1984년 3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3개월동안 2,419,244원상당을 신용카드를 통해 제공받고 대금지불을 연체하였다. 이에 연대보증인인 조氏는 최氏의 신용카드규약에 카드의 사용 한도액이 월간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들어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국민신용카드측에서는 최氏가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음을 알고서도 조氏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거래정지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월 사용 한도액이상은 그 책임이 국민신용카드

<sup>10)</sup> 국민신용카드의 회원규약, 제 15조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제 15 조(연대보증인의 책임)

1 연대보증인은 국내, 외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카드이용대금 연체일 다음달 결제일까지의 이용대금 및 우대채무에 대하여 부정이용에 관계없이 회원이 규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과 동일하게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전 1항의 월간 이용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그내용을 보증인에게 통지합니다.

3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보증행위에 대하여 발급된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회원이 사용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연대보증인의 효력은 전 제 3항의 기간내에서 재발급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측에 있음을 주장하여 결국 조氏가 勝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氏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한 달도 채 안되어 연체가 생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용조사없이 발급받은 경우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의식으로 볼 때 건전한 소비자라면 월간 사용한도액만큼의 카드이용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며, 카드회사에서도 스스로가 정해놓은 월간 사용한도액의 규정을 무시하고 카드이용금액의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만을 생각하고 회원본인에게 거래정지 처분을 늦게 한다든지,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증인제도의 남용 및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신용도조사를 확실히 한다면, 굳이 보증인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보증을 서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인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단순히 발급신청서의 보증인란에 연서하고 도장을 찍는 정도로 간단하다. 따라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범위를 알지 못한채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연방법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으로 보증인에게 책임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김문환, 1989).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신용카드의 문제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가맹점, 카드발행회사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사용, 관리측면에서의 문제는 소비자의 관리부주의와, 제3자의 무권한 사용,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가맹점의 불성실한 관리에서 비롯되며, 거래시점에서의 문제는 소비자의 부주의와 그것을 이용한 가맹점의 고의적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측면에서의 문제는 소비자의 신용카드오용 및 남용, 그리고 통제력부족과 카드발행회사의 고의적 신용조사 미비로 인해 비롯되는데 카드발행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증인제도의

남용에서 비롯된다.

보증인측면에서의 문제는 소비자의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인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상기 각 경우마다 소비자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입는 경우 또한 소비자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관리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된다.

먼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각 카드회사의 회원규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카드를 선택한다.

일단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번호와 카드회사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회원규약을 보관하여 문제 발생시에 참고로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분소득중에서 신용카드의 사용범위를 정하되 가치분소득의 2할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해놓은 월간 사용한도액을 지킨다.

또한 신용카드로 할부구입을 할 경우에는 완불하기까지는 고정지출이 되는 점을 명심한다. 사용시에는 결제과정을 반드시 지켜보고 매출전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만약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카드회사에 알리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소비자의 관리의무만으로는 늘어나는 신용카드 문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도적 환경으로서 법적인 규제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최근 신용카드의 확대추세와 함께 그것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도 빈번히 표출되고 있다. 가정경제와 관련하여 가정경제의 목표를 도와주는 역할을 신용카드가 할 때, 그 기능을 순기능으로 보고, 가정경제의 목표에 역행하는 기능을 역기능으로 대별하고, 신용카드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거래상의 문제점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각 사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리지침을 제안함으로써 가계의 재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신용카드 사용자 즉 가정관리자에게 신용카드의 역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보다 만족스러운 효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본 연구는 신용카드사용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재정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신용카드의 순기능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에는 누리지 못했던 효용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법을 개발하여 재정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계의 효용을 생산적 입장에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姜孝祥(1989), 「신용」 실종...범죄도구로. 조선일보, 12월, 13일자.
- 2) 高光澈(1990), 한사람이 여러개 소유, 과소비 부추겨. 한국경제신문, 3월 16일자, 3면.
- 3) 국민은행(1979), 미·일의 소비자신용제도.
- 4) 金文煥(1987), 크레디트 카드의 保證人責任. 判例月報 Vol. 200, 55-63.
- 5) 金文煥(1989), 신용카드 이야기. EM문고 076,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6) 김영성(1988),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金允煥(1981), 최근의 금융카드 발전현황과 Cash제도의 내용. 월간금융 28(5), 68.
- 8) 김정훈(1989), 현재와 미래의 신용카드사용의 의사결정에 따른 가정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61-70.
- 9) 김한수(1988), 카드산업사 전환과 대기업 진출 배경. 월간 신용경제, 7월호.
- 10) 남전희(1989),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1) 남정숙(1988),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행동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84), 신용카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대한주부 클럽연합회.
- 13) 동아일보(1990), 신용카드 사고 크게 늘어. 3월 29일자 6면.
- 14) 柳相德(1990), 「信用卡 거래법」 制定 시급. 서울신문 3월 7일자 9면.
- 15) 매일경제신문(1990), 신용카드발급 800만 돌파. 5월 1일자 13면.
- 16) 박근주(1990),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7) 박의준(1991), 신용카드 연체액 크게 늘었다. 중앙일보 1월 28일자 6면.
- 18) 심영(1982), 신용카드의 기능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 여정성(1990), 가계의 신용카드 선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2), 72-83.
- 20) 禹哉永(1989), 基本民法. 서울: 友一出版社, 53-54.
- 21) 윤복자(1985), "2000년대 한국 가정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대한 가정학회 제 3차 국제 가정학회 아세아 지구회의 및 한·일 가정학대회 발표 초록집.
- 22) 이말영(1984), Credit Card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3) 이미숙(1985), 주부들의 크레디트카드에 대한 인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4) 어성규(1990), 신용카드 이럴 때 조심. 월간 소비자시대 9월호, 82-85
- 25) 이영호(1986), 도시민의 신용카드 사용패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6) 이은영(1984), 約款規制論. 서울: 박영사.
- 27) 이한기(1990), 신용카드, 수수료 낮고 위험부담이 적은 카드는.. 월간 소비자시대 10월호, 95-101.
- 28) 임정빈·안영애(1987),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5집, 서울: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29) 중앙일보(1988), 신용카드 범죄, 신종범죄로. 1월 19일자 4면.
- 30) 최동숙(1985), 신용카드 사용 주부들의 소비자

-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77-93.
- 31) 최석천(1990), 소비자코너-신용카드가 과소비 조장한다. 월간 신용카드정보 10월호, 54-55
  - 32) 판례월보사(1986a), 은행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판례월보 186호, 81-82.
  - 33) 판례월보사(1986b),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의 한계. 판례월보 188호, 100-101.
  - 34) 판례월보사(1986c), 신용카드의 보증책임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는 예. 판례월보 192호, 85-86.
  - 35) 판례월보사(1986d),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약관의 효력 및 그 책임의 한계. 판례월보 195호, 94-96.
  - 36) 판례월보사(1987a),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의 귀속. 판례월보 197호, 92-93.
  - 37) 판례월보사(1987b),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는 약관의 효력 및 예외조항의 합리적 해석. 판례월보 202호, 86-89.
  - 38) 판례월보사(1987c), 신용카드 회원이 제3자의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여져 카드거래에 관한信義則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예. 판례월보 202호, 83-85.
  - 39) 한국 소비자보호원(1987), 신용카드거래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난, 분실시 부정사용 및 보증인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세미나 자료.
  - 40) 한국 소비자보호원(1989), 피해구제사례집-1988-, 146-155.
  - 41) 한국 소비자보호원(1990), 피해구제사례집-1989-.
  - 42) 허정희(1985), 가계신용카드 이용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3) 大谷陽子 外(1984), 改訂 家庭經濟學. 東京: 建帛社, 120-121
  - 44) 青木茂(1970), 家庭の經濟相談. 東京: 有斐閣, 128
  - 45) 姉齒 曉(1990), 消費者信用と家計構造の變化, 國民生活研究 29(4), 16-28
  - 46) Corrigan, E.G.(1982), Your Credit Right.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7.
  - 47) Davenport(1967), Book Credit Card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Valpariso U.L. Rev. Vol.1, p.218, p.460을 유선기(1988), 신용카드에 관한 법적 문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4에서 재인용.
  - 48) Deacon R.E., Firebaugh, F.Y.(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Allyn & Bacon Inc., 145.
  - 49) Dunsing M., Hafstrom, J.L. & Schnittgrund, K.P. (1973), Consumer Credit: Uses, Cost, Laws, Circulla 1087,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University of Illinois, 23.
  - 50) Godwinn D.D. &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51) Hirschman, E.C.(1979), Differences in Consumer Purchase Behavior by Credit Card Payment Syste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58-66.
  - 52) Rook, D.W.(1987), The Buying Impul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189-199.
  - 53) Stampfle, R.W.(1978), The Post Industrial Consumer. *Journal of Home Economics*, 70(3), 12-20.

